

## 국어의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

**[물음]** 우리말을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우리말에는 여섯이나 일곱쫘 되는 수를 가리키는 말로 예닐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어디선가 일곱이나 여덟쫘 되는 수를 가리키는 말도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이러한 구성으로 된 다른 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연,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답]**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수를 써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만을 가리키는 수사가 아니라 대강 짐작으로 이르는 어림수가 바로 떠오르지 않아 곤혹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말에 어림수가 많은데 어림수에는 여섯이나 일곱쫘 되는 수를 가리키는 ‘예닐곱’ 외에도 일곱이나 여덟쫘 되는 수를 가리키는 말도 있고 여덟이나 아홉쫘 되는 수를 가리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자주 쓰이는 어림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둘	하나나 둘쯤 되는 수.	가을바람에 나뭇잎이 한둘 떨어지기 시작한다.
두셋	둘이나 셋쯤 되는 수.	두셋이 한꺼번에 달려든다.
두서넛	둘이나 셋 또는 넷쯤 되는 수.	그는 장정 두서넛쯤은 간단히 쓰러뜨릴 수 있는 장사였다.
서넛	셋이나 넷쯤 되는 수.	방에는 어른 서넛이 앉아 있었다.
네다섯	넷이나 다섯쯤 되는 수.	아이들 네다섯이 방으로 들어왔다.
대여섯	다섯이나 여섯쯤 되는 수.	대여섯씩 짝을 지어 가다.
예닐곱	여섯이나 일곱쯤 되는 수.	나이가 예닐곱은 되어 보인다.
일고여덟 (일여덟)	일곱이나 여덟쯤 되는 수.	학생 열 명 중 일고여덟만 책을 구입했다.
여덟아홉 (열아홉)	여덟이나 아홉쯤 되는 수.	열에 여덟아홉은 이 일에 찬성할 것이다.
여남은	열이 조금 넘는 수.	그 날 회의에는 회원이 여남은밖에 모이지 않았다.

**[물음]** 새로 시작하는 달의 1일이 토요일일 경우, ‘첫째 주 월요일’은 지난달의 월요일인지 그 다음 주 월요일인 3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혜은, 서울시 동작구 사당3동)

**[답]** 가게나 기관이 이용자에게 정기 휴일을 알리기 위해 흔히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첫째 주 월요일’이라고 했을 때는 그 달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월요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주(週)’라는 말이 정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으므로, 한 달이 주 중에 시작될 때 그 주도 그달의 한 주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새로 시작하는 달의 1일이 토요일일 때 첫째 주 월요일은 지난달의 월요일도 될 수 있고, 새로 시작하는 달의 3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혼란을 가져

오지 않도록 ‘이달 첫째 월요일’과 같이 표현을 바꾸어 쓰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물음** “첫눈이 오기에/오길래 전화해 봤어.”라는 표현에서 ‘-기에’와 ‘-길래’ 가운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정민,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답** “첫눈이 오기에 전화해 봤어.”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첫눈이 내려서 전화를 한 것이므로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기에’를 써서 앞뒤 문장을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일상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 (1)과 같이 ‘-기에’ 대신 ‘-길래’를 많이 쓰는데 이는 ‘-기에’의 잘못입니다. 따라서 (1ㄱ)에서는 ‘보이기에’로, (1ㄴ)에서는 ‘뉘기에’로 써야 합니다.

(1) ㄱ. 맛있어 보이길래 너 주려고 사 왔다.(×)

ㄴ. 사랑이 뉘길래.(×)

그런데 ‘-르래’가 아래 (2)처럼 종결 어미로 쓰일 수 있는데 이는 적절하게 쓰인 것입니다. 종결 어미 ‘-르래’는 장차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의사를 나타내거나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데 씁니다.

(2) ㄱ. 언제 갈래?

ㄴ. 먼저 할래?

**물음** 얼마 전 방송 자막에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죄를 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죄를 지은’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지요.

(박종민, 충남 서산시 읍내동)

**답**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가 맞습니다.

‘어제 떠난 사람’의 ‘떠난’처럼 받침 없는 동사 어간 뒤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고, ‘도둑을 잡은 사람’의 ‘잡은’처럼 받침 있는 동사 어간 뒤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습니다.

(1) ㄱ. 떠나--ㄴ → 떠난

ㄴ. 잡--은 → 잡은

그런데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의 ‘지은’의 기본형은 ‘짓다’입니다. ‘짓다’는 ‘ㅅ’ 불규칙 용언으로서 ‘짓고’, ‘지어’, ‘지으니’, ‘짓는’ 따위처럼 활용합니다. 즉,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짓고’, ‘짓는’ 따위처럼 ‘짓-’의 ‘ㅅ’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지어’, ‘지으니’ 따위처럼 ‘ㅅ’이 탈락합니다. 게다가 관형사형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짓-’의 받침 ‘ㅅ’이 탈락하지만 ‘-ㄴ’이 아닌 ‘-은’이 붙습니다. 받침 ‘ㅅ’이 탈락하였지만 본래 받침을 가지던 용언이라는 사실을 활용할 때에 드러내어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ㄱ. 짓--고 → 짓고

ㄴ. 짓--어 → 지어

ㄷ. 짓--은 → 지은

따라서 물음의 예에서는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물음**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김모씨’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 단어의 띄어쓰기가 궁금합니다. 보통 이름을 쓰는 것과 견주어 본다면 다 붙여 써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써 놓으니 왠지 어색해 보입니다. 바른 띄어쓰기를 알려 주십시오.

(정혜영,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답** ‘김 모 씨’로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한글 맞춤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띄어쓰기를 보면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김양수

채영신 씨

박동식 박사

그런데 ‘모(某)’가 위의 ‘김양수’의 ‘양수’나 ‘채영신’의 ‘영신’이 올 자리에 쓰이기 때문에 ‘김모’처럼 붙여 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某)’는 ‘아무개’의 뜻을 나타내는 대명사이므로 앞 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이름이나 성 뒤에 붙어 쓰이는 ‘씨(氏)’는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로서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김 모 씨’처럼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물음** “하객들은 음식이 모자라다고 불평이 많았습니다.”에서 ‘모자라다’고’는 ‘모자란다고’로 바꿔 써야 한데 왜 그런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옆집 순이네 언니는 조금 모자라다고 소문이 났다.”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자란다고’로 바꿔 써야 하나요?

(김중희,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답** 위 문장의 ‘모자라다고’는 ‘모자란다고’로 바꿔 써야 합니다.

‘모자라다고’는 동사 ‘모자라다’의 어간 ‘모자라-’에 어미 ‘-다고’가 결합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다고’는 용언의 어간과 결합할 때에는 그 앞에 형용사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다’는 동사이므로 ‘모자라다고’는 잘못입니다. 다른 동사인 ‘가다’나 ‘먹다’의 어간 ‘가-’, ‘먹-’에 ‘-다’를 결합해 보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가다고, 먹다고’와 같은 활용형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동사의 어간에는 ‘-다고’ 대신 ‘-ㄴ다고’, ‘-는다고’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즉, ‘가-’처럼 받침 없는 동사에는 ‘-ㄴ다고’가, ‘먹-’처럼 받침 있는 동사의 어간에는 ‘-는다고’가 결합합니다.

- (1) 가. 내일 소풍을 간다고 마음이 들떠 있었다.
- 나. 동생은 밥을 먹는다고 공부를 잠시 쉬었다.

‘모자라다고’와 정반대의 경우로 형용사 어간에 ‘-는다고’를 결합하여 잘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맞는다고’가 그러한 예입니다. ‘알맞다’는 형용사이므로 이 예에서는 ‘-다고’를 써야 합니다.

- (2) 오늘 날씨가 나들이 가기에 알맞는다고(→알맞다고) 좋아했다.

**물음** 중국이나 일본의 인명, 지명은 중국어나 일본어에 근거해 한글로 적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北京’, ‘東京’은 무조건 한글로 ‘베이징’, ‘도쿄’라고 적어야 하는 것입니까? ‘북경’, ‘동경’이라고 적으면 틀린 것이 되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김지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답** 외국의 인명, 지명도 외래어이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습니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원지음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의 인명, 지명을 적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동양 삼국인 한국, 중국, 일본은 똑같이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어서 같은 한자가 국가별로 달리 읽힙니다. 그리하여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국과 일본의 인명, 지명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北京’, ‘上海’, ‘東京’, ‘大阪’ 따위는 오랫동안 한국 한자음인 ‘북경’, ‘상해’, ‘동경’, ‘대판’ 따위로 읽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칙적으로 ‘베이징’, ‘상하이’, ‘도쿄’, ‘오사카’ 따위로 적어야 하지만 ‘북경’, ‘상해’, ‘동경’, ‘대판’ 따위로 적는 것도 허용하였습니다. 즉, ‘북경’, ‘상해’, ‘동경’, ‘대판’ 따위로 적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반면 ‘哈爾濱’, ‘鹿兒島’ 같은 것은 원지음으로 ‘하얼빈’, ‘가고시마’ 따위로 하지 한국 한자음대로 ‘합이빈’, ‘녹아도’ 따위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지음으로만 적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인명의 경우에는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적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적습니다. 과거와 현대의 구분은 1911년 일어난 신해혁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孔子’는 ‘공자’로 적고 ‘袁世凱’는 ‘위안스카이’로 적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毛澤東’, ‘蔣介石’ 따위는 ‘마오쩌둥’, ‘장제스’로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택동’, ‘장개석’으로 적는 것도 허용됩니다. 중국 지명의 경우에는 역사적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적습니다. 예를 들어 ‘長安’은 역사적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기 때문에 ‘장안’이라 적고 ‘南京’은 현재 지명과 동일하여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난징’으로 적습니다.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모두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豊臣秀吉’, ‘奈良’ 따위는 각각 ‘도요토미 히데요시’, ‘나라’ 따위로 적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지명에는 위에

서 본 것처럼 오랫동안 한국 한자음으로 읽어 온 ‘東京’, ‘大阪’ 따위는 원칙적으로 ‘도쿄’, ‘오사카’ 따위로 적어야 하나 ‘동경’, ‘대관’ 따위로 적는 것이 허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인명에는 이러한 예외가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